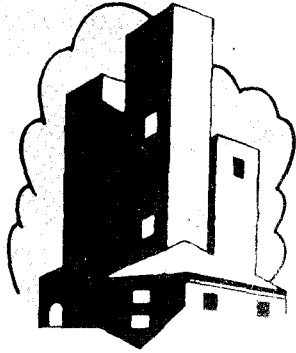


전문 환경인들의 역할



환경관리인 박병재

나의 학창시절의 여름날은 메케한 냄새와 같이 시작되었다. 공장지대의 학교 위치로 말미암아 문제거리가 되었지만 도심 내에도 아랑곳없이 뿜어져 나오는 새까만 연기와 창너머 하천의 울창이 한마리도 살지 못하는 시커먼 폐수며, 고향의 맑은 하늘은 못되더라도 뿌옇게 흐물거리는 기체덩이는 나의 소중해야 할 교정의 추억을 깨뜨리게 한다. 이때의 기억과 더불어 昨今の 환경분야의 문제점을 관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 자신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듣기와는 다른 관리인에 대한 처우, 발전이 결여된 직종, 실무 경험의 부족 등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다수 업체의 방지시설의 절대적인 미비, 일부 시설업자의 횡포에서 오는 근본 시설의 문제점, 기업·정부의 경시대도, 국민들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 등이었다. 이같은 문제는 환경인들의 고초와 사기 저하에 틀림없이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他분야로의 전향도 쉽지 않거니와 우리 국토의 맑고 푸른 강산을 내손으로 정화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나를 붙들었다. 사실 식수가 상품화 되고 있는 이때에

이미 그냥 먹을 수 없는 한강 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淸淨해진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국토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하수의 철저한 처리는 물론이고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이젠 내실있게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업체에서도 좀더 멀리 바라보고 방지시설의 확충과 보완으로 완벽한 처리는 물론이고 시설업자들도 충분한 연구와 관찰을 통해 적합한 시설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막아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문 환경인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정부에서도 환경보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 환경청 직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고 홍보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차차 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바로 환경을 淨化할 때다.

사명감이 넘치는 환경관리인의 결집과 함께 주위를 계도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환경보전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